



5월31일~6월1일 일본 도쿄 티아라 고토 공연장에서 열린 뮤지컬 '화려한 휴가' 공연에서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메이엔터테인먼트 제공〉

'오월 광주'의 울림... 일본 관객은 그들과 하나였다

시위대로 참여했다 숨진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은 어머니의 절규에 객석은 흐느꼈다. 도청에서의 마지막 밤. 죽음을 예감한 그들이 "우릴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노래할 때 관객들은 먹먹한 가슴을 누르며 눈물을 흘렸다.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어우러져 마지막 곡 '오늘은 소풍 가기 좋은날'을 부를 때, 관객들은 모두 그들과 하나였다.

는 일본 관객들이 작품을 소화하기에 다소 어렵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하지만 '하늘 소풍', '약속' 등 서정성이 돋보이는 음악과 배우들의 연기, 가족애·사랑·희생 등 보편적 감성들이 어우러져 이감정이입을 하는 관객들이 많았다.

3일 동안 공연장을 찾은 관객은 약 2500여명. 대부분 일본인 관객이었으며 연령층은 40~60대가 많았지만 20~30대 젊은 관

객들도 눈에 띄었다. 일본에서 태어난 김영란·이영희(54)씨는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치지 못하는데 오늘 30년도 지난 한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일본사람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후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고 미안하고 감사했다"며 "배우들이 자신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노래할 때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고 밝혔다.

'화려한 휴가' 작곡가 미하에 슈다우다씨는 "이 작품이 일본에서 공연된 게 정말 꿈 같다"며 "광주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힘들고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두 자신들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공연기획사 '피아'의 오다 국장은 "사랑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 등 인류 보편적 가치가 담긴 주제와 섬세한 음악 등이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5월 광주'를 소재로 한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지난 2009년 쇼케이스를 통해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대·소극장 버전으로 80여차례 공연됐다.

이번 해외 공연은 열악한 여건에서 진행됐다. 적은 비용으로 해외 투어를 진행하다 보니 무대 세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고, 배우와 스태프도 최소화해야만

했다. 또 지난해 공연과 달리 광주 배우들이 합류하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이번 해외 투어는 메이엔터테인먼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본의 사회문화재단체인 '일본우타고에전국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특히 우타고에 협회회는 1년전부터 '화려한 휴가' 도쿄 공연을 성사 시키는 모임을 결성, 티켓 판매에 적극 나섰고 극장 대관, 영상·음향·조명 기기 대여 및 현지 스태프 등을 지원하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공연장 로비에서는 우타고에 회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아침이슬' 등을 부르며 관객들을 맞았다. 특히 공연 후에는 로비에 전시된 5·18 관련 사진들을 유심히 보는 이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밖에 광주시가 제작한 5·18 공식 책자(160페이지) 일러판과 리플렛 2000장, '5·18 광주민중항쟁 10일간의 기록' 등 비디오 자료는 관객들에게 5·18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타고에 전국협회 국제교류위원장 고바야시 히카루씨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리기 위해 '화려한 휴가'를 초청했는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으로 오히려 우리 일본인들이 어떻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줬다"고 말했다. /도쿄=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뮤지컬 '화려한 휴가' 도쿄 공연... "5·18 이해 도왔다"

우타고에협, 1년전부터 티켓판매·극장대관 등 적극 지원

5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31일과 6월1일, 뮤지컬 '화려한 휴가'가 공연된 일본 도쿄 티아라 고토 극장 풍경은 감동적이었다. 특히 그 어느 해보다 '외로운 삶'이었던 '오월 광주'였기에 먼나라 일본에서 울려 퍼진 오월의 이야기는 더욱 마음을 울렸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눈가를 훔치는 관객들의 모습과 끊이지 않는 박수소리, 커튼콜 때 다같이 박자를 맞춰 환호할 때 광주는 외롭지 않았다.

객들도 눈에 띄었다. 공무원인 요시다 이요코(56)씨는 "5·18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힘 없는 사람들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표현방법이나 노래도 참 좋았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요네야마 치오코(22)씨는 "공연장에 오기 전에는 5·18에 대해 전혀 모르고 왔는데 공연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일본어 자막으로 공연이 진행되는 데다 광주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

세계비엔날레협회 사무국 광주 유치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가 초대 회장을 맡은 세계비엔날레협회 사무국이 광주에 유치됐다.

세계비엔날레협회는 앞으로 사무총장을 인선하고 사무국 인력을 꾸린 뒤 비엔날레의 역할과 가치에 관한 정책연구, 교류·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날 임시이사회의 이어 지난해 광주에서 열렸던 세계비엔날레대회 결과 자료집 '무게중심의 이동'(Shifting Gravity)은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세계비엔날레협회는 앞으로 사무총장을 인선하고 사무국 인력을 꾸린 뒤 비엔날레의 역할과 가치에 관한 정책연구, 교류·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날 임시이사회의 이어 지난해 광주에서 열렸던 세계비엔날레대회 결과 자료집 '무게중심의 이동'(Shifting Gravity)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독일 미술전문출판사인 하티에 칸츠(Hatje Cantz)에서 발행한 이 자료집은 각 비엔날레 소개자료, 이스탄불문화예술재단에서 최근 조사한 '국제 현대미술비엔날레 재정구조에 관한 리포트' 등이 수록돼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트광주13' 무료부스 사라진다

9월5~8일 DJ센터 개최... 큐레이터 추천 작품 전시

올해 4회째를 맞는 '아트광주'에는 국내·외 유명 평론가·유명 미술이론가와 큐레이터가 추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무대에 선보이고, 무료부스도 사라진다. 아트광주조직위원회는 3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아트광주13'이 오는 9월 5~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9월4일이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협과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올해 행사는 본전시와 4개의 특별전,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50~7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갤러리는 최대 5개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 갤러리는 이달 말 최종확정된다. 본전시는 윤진섭, 김원방, 서진석, 이

대형씨 등을 비롯해 국내·외 유명 평론가와 큐레이터들이 추천하는 작가들을 신생 갤러리와 연계해 참여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성과 상업성을 갖춘 작가들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별전은 '동남아시아 대표 작가 특별전' '한중일 젊은 작가 특별전' 등으로 꾸며진다. 동남아시아 대표 작가 특별전은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중심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싹트고 있는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작가를 초점할 예정이다. 또 서진석, 후미히코 스미모토(일본), 자오리(중국) 등 3국의 미술이론가 및 큐레이터가 추천하는 작가들로 '한중일 젊은 작가 특별전'이 진행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트광주13' 예술감독 이진명씨

"아트광주 통해 미술시장 키우겠다"

"다른 아트페어에서도 볼 수 있는 식상한 전시가 아니라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아젠다를 구축할 수 있는 아트페어를 만들겠습니다."

아트광주13 예술감독을 맡은 이진명(40)씨는 광주지역 미술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트광주를 기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감독은 "상업갤러리와 컬렉터는 작가들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기초적인 자양분이지만 광주는 갤러리가 적고, 전문 컬렉터도 없다"며 "아트광주를 통해 컬렉터와 갤러리가 광주를 주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갤러리들이 소장품 위주로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역 참여 작가들도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리 광주작가들을 위한 부스를 만들지 않는 대신 가능성이 있는 작가들을 갤러리와 연계시켜 동반 성장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 감독은 "철저히 검증된 광주지역 작가들은 아트광주가 끝난 이후에도 이 끌고 가고 싶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함께 광주의 미술시장이 향후 5년 내에 부산과 대구를 뛰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동남아시아 대표 작가 특별전을 기획한 이유도 좁게는 광주 미술의 답변



을 형성하고 넓게는 광주가 아시아미술을 주도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 감독은 "광주비엔날레가 광주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데에는 일조했지만 광주의 미술시장을 키우지는 못했다"며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광주 미술시장 규모를 키우는 행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홍익대 예술학과와 동 대학원 미학과 출신인 이 감독은 아마도 예술공간 디렉터, 대안공간 투르 협력 큐레이터를 지냈으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학예 레이터, 독일 함부르크 문화국 주최 해외 큐레이터시 한국 대표로 참여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경매 뉴스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전수합니다.

교육비는 1,100만원이고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전수합니다.

단, 투자금이 1억이상 가진분에 한합니다.

주, 오천옥선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북구 신인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172억 최저가120억
- ▷서구 쌍촌동 2중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15억5천만 최저가13억8천만
-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2억4천만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1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및창고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토지매매

- ▷화순읍 연암리 자연녹지 담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